



이순신의 영정.

현직 부산고법 부장판사
구체적 사실·증거 토대로
시대별 충무공 생애 정리
고매한 인격·참지도자像 감동

책속의 밑줄긋기

▲“공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위해 가도 세평에 흔들리지 않은채 오직 바른 한길로 혼자 힘으로 묵묵히 나아갔으며, 일이 있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가, 일을 당해서는 성패는 하늘에 맡겨져 채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과 창의적 지혜로 용기있게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낸 훌륭한 삶을 살았다.”

▲“대정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말아도 또한 죽을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뜯 영화를 탐내는 것 같은 것은 나의 부끄러워하는 바라.”

▲“아직도 신에게는 열두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사오면,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내게는 아직도 배가 열두척이 있습니다
김종대 지음 | 북포스 | 9천5백원



난중 일기와 편지.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문학과 드라마, 영화는 물론 심지어는 도로 이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위인중의 한 분이다.

특히 신재호의 <리순신전>(1908)을 비롯해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1931), 홍성원의 5부작 <달과 갈>(1993), 김홍의 <갈의 노래>(2001), 최근 출간된 김탁환의 8부작 <불멸의 이순신>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현대에 가까워 올수록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과 분명한 거리를 두며 이순신을 재창조해 낸다. 이순신은 더 이상 광화문 사거리로 긴 칼을 옆에 차고 우뚝 서 있는 우상이나 신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소탈한 존재로 등장한다. 예를들어 “똥도 아프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아 갑옷과 투구가 무거울 지경(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소연 하는 이순신은 <리순신전>이나 <소설 이순신>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이다.

하지만 ‘지음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사건을 맡기도 한 김종대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최근 출간한 <내게는 아직도...>는 저자의 공직생활 30여년동안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은 이순신의 영웅적 삶이 감동적으로 서술돼 있다. 김 판사가 충무공 이순신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공군 법무관 시절 노산 이은상의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읽으면서 부터다. 이후 20여년동안 충무공의 마니아(?)로 성장하며 틈틈이 사료와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순신이 살아있다면 단연코 김 판사는 팬사이트의 회장을 맡고도 남을 정도로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이 책 곳곳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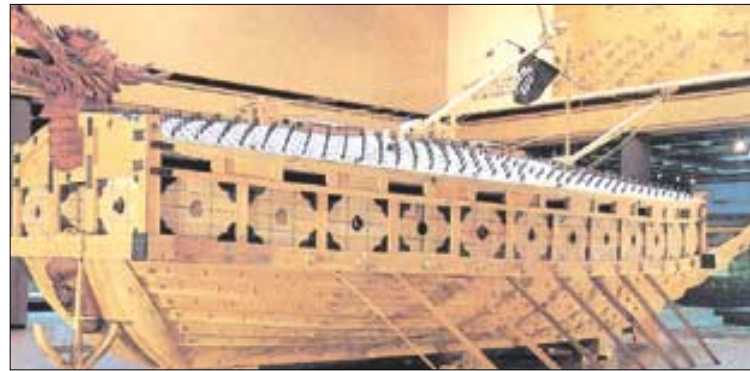
특히 이 책은 이순신의 탄생부터 노랑해전에서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하고 그 갈피마다 담겨 있는 시대에 대한 평가를 정리했다. 또 그의 생애를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판사의 펜 끝에서 살아난
맑고 투명한 영혼 ‘이순신’

혹 자료에 따라 상반되게 기술된 부분이 나타나면 법관이 증거자료를 취사 선택해 사실 인정을 하는 식으로 각종 구체적 사실들을 정리해 놓았다. 다만 그의 인품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위가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그 기술을 피했고, 과장하거나 주관적 기술도 피했다.

저자는 이렇듯 정성스럽게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고 나니 다시한번 그의 인물에 머리 숙여진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당시 승지였던 최우해가 이순신의 인물됨을 가려 쓴 행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그를 찬탄한다.

“공은 엄하고 진중하여 위풍이 있는 한편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으며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또 부하 장수들이 공이 다시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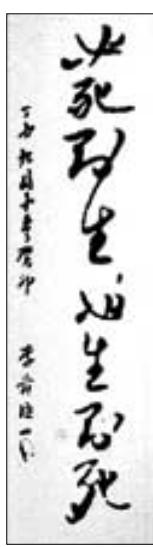


의 탄환에 상할까 염려하여 어쩌서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니 하고 말리던 공은 하늘을 가리키며 어찌 너희들만 시켜 적을 대항케 할 것인가 일축했다.”

저자의 이순신 예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순신은 왕이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까지 했던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세운 충(忠)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한다. 또 싸울 전선과 병사들을 다 잃어놓고 그 열매, 백배가 넘는 적의 수군과 싸우며 뻔뻔스런 재임명의 교서를 내려도 불평없이 받아들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고뇌하는 인간적인 장수,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백의종군한 진정한 지도자라 평한다.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 자신의 삶에 의기소침해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반드시 절망속에서 희망을,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삼국유사
일연 저 이민수 역 | 을유문화사 | 8천5백원

삼국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에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다. 알려진 바대로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지으신 것이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중국의 사서에 의지해서 지었다고 한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할 때 고려는 무신난 이후 원의 억압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때 문화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민족적 자각을 위하여 쓴 책이다. <삼국유사>의 체제는 5권 9편 144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9편은 왕력·기이·홍법·탑상·의해·신주·감통·피은·효선 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삼국사기>와는 달리 단군 신화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 이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하나 - 우리민족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삼국유사>에는 역사, 불교, 설화는 물론 많은 고문헌이 인용되어 있어 역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물론 향가 14수는 국문학적으로도 귀한 구실을 하게 한다. 하지만 책 말미에 나오는 효선편의 늙은 부모를 지게에 저다 버리는 내용의 기로(耆老)설화는 고려장을 연상케 하여 효를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왔던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한민족 신화와 역사를 찾아서

익숙해서 놓치기쉬운 삼국유사와 시간여행을

<삼국유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단학회 등 많은 종류의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한 번역본이 없다는 것이다. 중간 중간 해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역자들이 미상(未詳)으로 취급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아쉬운 것은 과거 우리의 역사가 지녔던 세계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경주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아리안 계통의 스리랑카인이었다는 것 등 기존 사학자들이 간과했던 원거리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한 자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 성과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근래에 국내의 학자의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심히 팔복할만하다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이나 웨니해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으로 시끄럽다. 학계는 학계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행정 관료는 행정 관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호들갑들이다. 모두 업보다. 그리고 외교 통상부의 고위 관료가 항의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들이 과연 고구려사의 일면을 서술하고 있는 <삼국유사>를 어느 정도 읽었는지 궁금하다. 책 이름이 너무 익숙하면 마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듯하여 잘 안 읽게 된다고 한다.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책이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기 보다는 부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들만 읽어 왔나 보다. 하지만 그래도 읽어야 할 책은 읽어야 한다. 역사 정리 문제 등 인문적인 문제에 바탕을 둔 민족자존의 문제가 산적한 지금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역사는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민족에게만 지킴을 당해 준다. 그리스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화와 철학, 역사에 바탕을 두어 올림피아 게임을 개최해 역대 올림픽을 가장 우수하고 내용이 알찬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한다. 그것의 뿌리가 신화와 철학, 역사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신화와 철학, 역사에 바탕을 둔 책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송승지 (서울보건대 교수)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장래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 의례(喪儀禮),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래는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불교장려학과
2년과정: 2004년 9월 7일(화) 오후 7시개강

Table with 2 columns: 과목 (Subjects) and 내용 (Content). Subjects include 장례학개론, 불교의례실습, 사회복지개론, 불교상, 장례문화이해, 실습, 견학 등.

Table with 4 columns: 모집인원 (Recruitment), 지원자격 (Requirements), 제출서류 (Documents), 원서교부 및 접수 (Application and Submission). Recruitment: 불교장려학과(30명), 불교다도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Table with 2 columns: 전형방법 (Admission Method) and 강의일시 및 장소 (Lecture Time and Location). Admission: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Lecture: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려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불교미술학과).

본 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4 columns: 과목 (Subjects), 요일 (Days), 개설경전 (Courses), 교수 (Professors). Subjects include 불교학과, 농업경제학과, 근본불교학과.

2.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3 columns: 모집인원 (Recruitment), 제출서류 (Documents), 강의일시 및 장소 (Lecture Time and Location).

3. 개강일시: 불교학과 2004년 9월 6일(월) 오후 7시, 농업경제학과 2004년 9월 7일(화) 오후 2시, 근본불교학과 2004년 9월 9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이십만원

5. 특 전: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

6. 원서 문의 교부: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실습론 (Practical Theory) and 이론론 (Theoretical Theory). 실습론: 무진스님, 의식작법 실습. 이론론: 심만춘스님, 의식작법 이론.

2.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4 columns: 모집인원 (Recruitment), 지원자격 (Requirements), 제출서류 (Documents), 강의일시 및 장소 (Lecture Time and Location).

3. 개강일시: 9월 11일(토) 오후 1시 (정규반), 9월 8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월 9일(목) 오후 12시30분(주간반), 9월 10일(금) 오후 3시 (비라반)

4. 입학금: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6. 특 전: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